

# 잠시 잠잠하더니... 제주 집값 다시 '꿈틀'

### 2019년 5월 3억1426만원 최고가 후 진정 추세 4월 기준 3억200만원으로 확연한 오름세 반전

“3일 제주시 주요 간선도로변에 9억 원대 연동 분양아파트 가격으로 더 큰 전용면적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불법 현수막이 내걸린 것을 봤다. 제주에서 가장 비싼 분양가를 기준 삼아 싸게 분양한다는 홍보 마케팅에 적잖이 놀랐다.” 최근 제주지역에서 폭등한 아파트 분양가를 바라보는 한 시민의 얘기다.

제주지역에서 최근 청약이 진행된 고분양가 아파트에 대한 논란이 식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잠시 진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확연하게 오름세를 타고 있다.

단지형 아파트의 경우 한 채만 시

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돼도 곧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쳐온 탓에 최근 고분양가 아파트 분양 후 집을 팔겠다고 내놔던 이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향후 집값 추이에 실수요층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하면 4월 기준 도내 주택 평균매매가격은 3억200만원으로 지난해 11월(2억9980만원)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6년 전인 2015년 4월 1억4617만원이던 평균매매가격은 제주 이주 열풍과 주택경기 활황세를 업고 상승세를 지속해 2016년

9월(2억3068만원) 2억원대에 진입했고, 2019년 1월(3억1401만원)에는 3억원을 넘겼다. 그 후 2019년 5월(3억1426만원) 사상 최고가를 찍은 후에는 1000호 이상 쌓인 미분양과 건설경기 침체, 경기부진 등이 복합 작용하며 소폭의 내림세가 18개월 이어져 2020년 11월에는 2억9980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강원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제주로 다른 지방 투기수요가 유입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집을 사들이며 12월 상승 반전 후 뚜렷하게 오름세를 타는 모습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3월과 4월 제주시 연동의 인접한 곳에서 분양한 연동 한일베라제 더 퍼스트와 e편한세상 연동 센트럴파크는 각각

최고 분양가가 6억7910만원(전용 83㎡ 기준), 9억4830만원(전용 84㎡)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부동산에 매물로 나왔던 물량이 자취를 감추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고분양가 논란에도 1순위에서 청약이 모두 마감되자 그동안 주변 시세에 따라 상승세를 보였던 과거 경험에 비춰 좀 더 시장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관망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도내 주택매매가격 상승은 전세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9년 1월 1억8708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던 도내 평균전세가격은 2020년 11월 1억7965만원까지 내렸다가 12월 상승 반전 후 올 4월 기준 1억8129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한시생계지원금 1994가구·10억여원 지원

### 서귀포시, 10·28일 신청 접수

서귀포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1994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 10억6666만원을 지원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된 가구,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로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회, 현금 50만원이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 부처사업으로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고용부, 중소기업,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국토부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오후 10시)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홈페이지로 세대주가 직접 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1차 지급은 6월 25일, 2차 지급은 6월 28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백귀탁기자 haru@ihalla.com

## 소상공인 소득세 납부 8월말까지 연장 제주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이달말까지 운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 연장된다.

제주시는 2020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이달 31일까지 운영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납부기한은 8월말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신고·납부와 관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세무서 및 제주시 세무과 내 별도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합동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합동 도움창구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역이 상관없이 운영된다.

시는 또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는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연계해 간편 전자신고 환경을 제공하고 전담 상담원도 배치해 콜센터(☎1661-0544)를 운영하고 있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신고 마지막 날인 이달 31일에는 시스템 이용자 증가로 인해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희기자

##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년비 4.11%↑ 제주시, 이달 28일까지 이의신청기간 운영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해 29일 결정·공시하고 이달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총 6만2202호·9조8461억원으로, 전년 대비 실질 상승률은 4.11%로 나타났다.

시는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2021년 개별주택 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go.kr)에서 열람·확인 가능하다.

결정·공시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FAX, 온

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이와관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일사판리 www.kras.go.kr)을 통한 이의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의신청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5월 31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제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재조정 공시하고 해당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병행 시행되며,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희기자 yhle@ihalla.com



“월척을 기다리며...” 일단의 낚시인들이 3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방파제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다. 방파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낚시포구와 바다 경관을 감상하며 모처럼의 휴식을 즐기고 있다. 이상국기자

## 매년 감소 해녀 신규양성 시책 효과 불까

### 한수풀해녀학교 졸업생 722명 중 30명 어촌계 가입 지난해는 18명중 8명... 제주시 “지원폭 지속 확대”

고령화 등으로 매년 해녀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지원폭 확대에도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는 미지수다.

제주시는 최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 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해 한수풀 해녀학교 입학생 52명을 최종 선정했다. 시는 올해부터는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해 직업양성반의 지원폭을 50세 미만에서 60세 미만으로 확대, 희망자를 모집했다. 그 결과 총 50여명 모집에 221명(도내 144명·도외 77명) 지원으로 4.4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최종 선정된 직업양성반 21명과 입문양성과정반 31명은 오는 9월 입학식을 거쳐 8월말까지 약 3개월간 전문 직업해녀 양성을 위한 교육을

받고 어촌계에 가입하게 된다.

시는 또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해 어촌계 가입비(만 60세 미만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과 만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신규 해녀 초기 정착금 1인당 3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등 지원금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수풀 해녀학교 졸업생 722명 중 어촌계 가입 인원은 30명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는 한수풀해녀학교 직업양성반 졸업인원 18명 중 8명이 어촌계에

가입했다. 한수풀 해녀학교가 해녀들 용문으로서 역할을 하고는 있으나 한편에서는 어촌계 가입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는 이와관련 올해 해녀학교 졸업생 중 신규 해녀 어촌계 가입인원은 1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와함께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해 올해 처음 수산공익직접지원제 사업의 하나로 경영이양직접지원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은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한다. 직불금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어업을 해온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연간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까지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제주 해녀는 매년 감소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현직 해녀는 총 36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3820명보다 207명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중단했던 물질을 재개하거나 해녀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이 물질을 나선 해녀가 30명으로 집계됐지만 고령화와 질병으로 인해 조업을 포기하거나 사망한 해녀 수가 237명에 달해 전체 해녀 수 감소가 이어졌다.

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올해는 해녀학교 졸업생 가운데 10명을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인원으로 설정했다”며 “신규 해녀 양성과 해녀문화 보존·전승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희기자

**콘크리트 먼처리  
콘크리트 폴리싱  
세라믹 폴리싱  
테라조 연마 광택**

에폭시/우레탄 도막제거

표창장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이사장 직책회  
귀하는 자조자립현통의 활동조항 실천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소상공인 활동조항 활성화 및 경제적 제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박영

제주대 중앙도서관 도끼다시바닥

**아직도 공장, 주차장, 사무실, 쇼핑센터, 물류창고 등  
바닥에 에폭시나 타제품으로 시공하고 계십니까?**

**선진국형 친환경 마감공법인  
콘크리트 폴리싱 시공으로 한 번에  
영구적 바닥 해결!**

신화역사공원 YG

대형 상가매장

일정리 카페

강한 내구성, 친환경 시공, 쾌적한 표면, 작업환경의 개선  
저렴하고 용이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한 안전 바닥재

HTC SUPERFLOOR™  
콘크리트 바닥재의 새로운 혁명!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주식회사 제라콘  
☎ 723-3090 010-5678-2586

냉동창고 콘크리트 폴리싱

영성미디어센터

종달리 카페

동아타운 물류센터

세화카페

우도농협하나로

스트라이크볼링장

함덕 유드림 식자재마트